4부 성경의 속성

성경론 19편 원본은 없는데 무엇을 믿나 · 보존, 사본, 번역

프레임 33장 성경의 전달 · 프레임 34장 성경의 번역과 편집(장 번호 추정) · 신앙고백서 1.8 · 오웬 둘째 논고(히브리어·헬라어 본문의 온전함과 순수성) 1~2장 · 워필드 부록 4 성경의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 · 신앙고백서 1장 1.8

> ❓ **성경 원본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데, 그럼 “원본은 틀림이 없다”는 말도 지금 나한테는 소용없는 거 아니야?**

🧭 흐름 한눈에

출발점은 프레임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까지의 길(영감)에서는 말씀이 조금도 줄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길(필사·번역)은 틀릴 수 있는 사람의 수단입니다. 이어 프레임은 무오가 사라진 원본 '종이'가 아니라 원본 '글(원문)'에 속하고, 그 글은 정확한 사본 안에 그대로 살아 있다고 논증합니다. 그 위에서 원본 무오 제한에 대한 비판들(사도들도 사본을 인용했다, 변명용 회피다, 죽은 문자다)에 답합니다. 오웬은 350년 전 같은 자리에서 원본 분실과 필사 실수를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섭리로 말씀 전체를 원어 사본들 안에 일점일획까지 지키셨다고 변호했고, 신앙고백서 1.8은 이것을 교회의 공적 고백으로 못 박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역도 원문의 뜻을 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서 세 목소리가 만나며, 결론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던 말씀은 하나도 잃지 않았다”입니다.

📜 절별 정리

★ = 두 권 이상이 같은 구절을 든 곳(이 교리의 기둥 구절)

📜 1.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두 길 (프레임 33장 · 신앙고백서 1.8 · 워필드 부록 4)

프레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길을 두 목록으로 나눕니다. 첫째 목록(하나님의 음성 → 선지자와 사도 → 기록된 성경)에서는 말씀의 능력·권위·임재가 조금도 줄지 않습니다. 신앙고백서 1.8이 히브리어·헬라어 원어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영감하셨다”고 할 때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워필드는 부록 4에서 이 영감의 단계를 '협력'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자의 일을 밀어내지 않고 그 일을 통해 이루어져서, 모든 단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다만 워필드의 이 설명은 영감에 관한 것이지 필사·번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목록(사본, 본문 비평, 번역, 설교, 해석...)은 영감되지 않은 사람의 수단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프레임은 이것들이 말씀을 실어 나르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원본이 없으면?'이라는 질문은 이 둘째 목록에 관한 질문이고, 이 편 전체는 틀릴 수 있는 둘째 길이 틀림없는 첫째 길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따라갑니다.

1. 첫째 길(영감): 말씀이 줄지 않음
2. 둘째 길(사본·번역): 틀릴 수 있는 수단
3. 둘째 길도 말씀을 실어 나르는 통로
4. 영감은 하나님과 저자의 협력(워필드)
5. 고백서 1.8의 '직접 영감'은 첫째 길

> **디모데후서 3:16 ★**
> 영감이 사람뿐 아니라 기록된 글 자체에 미침(프레임). 신앙고백서도 1.2에서 '영감으로 주어짐'의 근거로 듦

> **빌립보서 2:12-13**
> 사람의 수고와 하나님의 역사가 경쟁하지 않고 함께 간다는 '협력'의 유비(워필드가 직접 든 유일한 구절)
>
>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 너희

>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부분, 모든 단어, 모든 세부에 이르기까지 동시에 신적이며 인간적인 책” — 워필드

📜 2. 원본은 '종이'가 아니라 '글'이다 (프레임 33장)

원본은 첫 초안이 아니라, 저자가 처음 완성해 직접 쓰거나 승인한 판입니다 (프레임은 그레그 반센의 정의를 따릅니다). 바울이 더디오 같은 대필자를 쓰고 편지 끝에 친필 인사를 붙인 일도 이 개념을 흔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거듭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전통을 더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뺀 바리새인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 원본과 변질된 사본을 구별하는 선은 성경 스스로 그은 것입니다. 프레임의 결정적 구별은 원본 '문서'와 원본 '텍스트(원문)'입니다. 링컨의 연설문을 다섯 번 인쇄하면 종이는 여섯 장이어도 글은 하나이듯, 정확한 사본 안에는 원문이 그대로 있고 그 사본은 원본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모든 필사자를 실수에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1. 원본 = 초안이 아니라 저자의 완성본
2. '가감하지 말라' = 원본과 변질본의 구별
3. 기준은 원본 '종이'가 아니라 원본 '글'
4. 정확한 사본은 원본만큼 권위 있음
5. 완벽한 필사의 약속은 성경에 없음

> **로마서 16:22**
> 더디오가 로마서를 받아 적음: 대필자의 실제 사례
>
>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친필 인사가 진짜 편지의 표시: 저자가 진본을 보증함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신명기 4:2

하나님 명령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가감 금지의 기본 원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32

같은 명령의 반복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잠언 30:5-6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적용되는 일반 원리

5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6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요한계시록 22:18-19

신약 끝의 같은 경고(직접 대상은 요한계시록)

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마가복음 7:8

바리새인이 전통을 붙들어 말씀에 '더함'

마태복음 23:23

정의·긍휼·믿음을 버려 말씀에서 '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 3. 예수님도 사본으로 성경을 읽으셨다 (프레임 33장 · 오웬 둘째 논고 2장 · 신앙고백서 1.8)

반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원본 없이 사본과 70인역으로 성경을 인용했으니, 무오를 원본에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70인역은 예수님 시대에 널리 쓰인 구약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프레임은 그들도 참 말씀과 사람의 첨가를 분명히 구별했고, 정확한 사본을 인용하는 것은 곧 원문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70인역 인용도 번역본에 따로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에게 익숙한 성경으로 원문의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오웬은 같은 사실을 다른 쪽에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잘못된 해석은 꾸짖으셨지만 본문을 훼손했다고 꾸짖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웬과 신앙고백서 1.8은 모두 이 구절을 보존의 근거로 듭니다.

1. 예수님·사도들도 사본으로 성경을 읽음
2. 정확한 사본 인용 = 원문 인용(프레임)
3. 70인역은 소통 도구, 별도 권위 아님
4. 예수님은 본문 훼손을 꾸짖지 않으심(오웬)
5. '일점일획'은 보존의 기둥 구절

마태복음 5:18 ★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음: 오웬(글자 하나까지의 보존)과 신앙고백서 1.8(하나님의 보존)이 함께 드는 기둥 구절

마가복음 7:8

>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 4. "필사 오류야"는 근거 있을 때만: 본문 비평의 바른 자리 (프레임 33장 · 오웬 둘째 논고 1~2장)

비판자들은 복음주의자가 난제마다 “필사자가 틀렸겠지”로 빠져나간다고 말합니다. 프레임은 원본 제한이 변증의 필요가 아니라 성경의 자기 이해(2절)에서 나왔다고 답하고, 필사 오류는 근거가 있을 때만 말하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외양간 수가 열왕기상에는 4만, 역대하에는 4천으로 나오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히브리어로 두 숫자가 비슷하게 생겨 필사 실수로 볼 근거가 있습니다(가이슬러와 호웨의 설명). 그러나 겨자씨 문제처럼 근거 없는 곳에 “본문이 잘못됐을 수도”를 끌어오는 것은 역효과이고,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편이 정직합니다. 오웬도 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필사자는 영감받지 않았고 실수도 있었지만, 실수는 증명되는 만큼만 인정하고 사본 근거 없는 학자의 '추측 교정'은 이문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합치면 본문 비평의 바른 자리가 보입니다. 본문 비평은 실제 사본이라는 증거로 원문에 다가가는 도구이지, 마음에 안 드는 곳을 고치는 칼이 아닙니다.

1. 원본 제한은 변증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옴
2. 필사 오류는 근거 있을 때만(프레임)
3. 막히면 “모르겠다”가 더 정직
4. 실수는 증명된 만큼만 인정(오웬)
5. 추측 교정은 '이문'의 자격이 없다(오웬)

> **열왕기상 4:26**
> 외양간 4만: 필사 오류 가능성이 합리적인 사례
>
>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이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며

> **역대하 9:25**
> 외양간 4천: 위 구절과 비교되는 평행 본문

솔로몬의 병거 메는 말의 외양간은 사천이요 마병은 만 이천 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마태복음 13:31-32

겨자씨: 본문 변질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 사례

31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설명의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 정직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좋으며" — 프레임

"그들의 실수는 증명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일에서 증거 없이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오웬

📜 5. 무오는 죽은 문자가 아니다: 원문은 사본 안에 살아 있다 (프레임 33장 · 신앙고백서 1.8 · 오웬 둘째 논고 1~2장)

그래도 사라진 원본의 무오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냐는 비판이 남습니다. 프레임의 첫 답은 무오성이 먼저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고백이라는 것이고, 둘째 답은 원문이 사본을 통해 실제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사본은 양과 시기와 질에서 다른 고대 문헌을 앞섭니다. 사본 간 차이는 대부분 철자·어순처럼 뜻에 영향이 없고, 마가복음 끝부분 같은 큰 문제도 교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어떤 교리도 한 구절에만 기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고백서 1.8은 이것을 원어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지켜졌다고 고백합니다. 프레임은 이 문장을 직접 인용하되, 특정 본문 전통(KJV·비잔틴 본문)만 옳다는 뜻으로 읽지 않고 여러 사본 계열을 통한 보존으로 읽습니다. 오웬은 케레·크티브

무너지면 계시도 우리에게 소용없어집니다. 그러나 말씀과 영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언약 때문에, 말씀 전체가 원어 사본들 안에 일점일획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 오웬의 결론입니다.

1. 무오는 먼저 하나님의 진실성 고백
2. 원문은 사본과 본문 비평으로 접근 가능
3. 사본 차이는 대부분 뜻과 무관
4. 보존은 한 사본이 아닌 사본 전체 안에
5. 보존은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기초(오웬)

> **이사야 59:21** ★
> 내 영과 내 말이 네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오웬의 보존 교리 중심 근거.
> 신앙고백서는 1.5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근거로 듦(역할은 다름)

> **로마서 3:2** ★
>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신앙고백서 1.8과 오웬이 함께 드는 보존의 통로

> **베드로전서 1:25**
>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음: 말씀의 지속성(오웬)
>
>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 **마가복음 16:9-20**
> 가장 큰 본문 문제의 예. 프레임은 원문이 아니라고 보지만 교리에는 영향 없다고 봄
>
> 9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11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

고린도전서 15:29

애매한 한 구절로 교리를 세우는 잘못의 예: 교리는 여러 구절 위에 선다(프레임)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원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과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지켜졌다." — 신앙고백서 1.8

"하나님이 한때 말씀을 그렇게 주셨다 한들, 그 말씀이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온전하게 보존되었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 오웬

📜 6. 왜 원본을 남기지 않으셨을까 (프레임 33장 · 오웬 둘째 논고 2장)

하나님은 원문을 놀랍게 지키셨는데, 왜 원본 문서는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프레임은 성경이 이유를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고 먼저 인정한 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원본이 남았다면 놋뱀처럼 숭배 대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 원본이 있어도 오늘의 논쟁은 대부분 본문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웬도 자필본이 모두 사라졌음을 먼저 인정하며 거의 같은 추론을 합니다. 원본이 남았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원본을 잃게 하심으로 일점일획을 지키시는 섭리를 우리가 더 가까이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웬은 모세의 율법책이 언약궤 곁에 보관되다가 성전 파괴 무렵 사라졌다고 보고, 신약 서신은 사도 시대부터 곧바로 필사되어 여러 교회로 퍼졌다고 말합니다. 시대가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추측에 닿지만, 둘 다 조심스러운 추론으로

1. 성경은 이유를 말하지 않음(추론일 뿐)
2. 남았다면 숭배 대상(프레임·오웬 모두)
3. 원본이 있어도 해석 논쟁은 남음
4. 원본 상실 → 섭리를 바라보게 됨(오웬)
5. 신약은 처음부터 필사·회람됨

> **열왕기하 18:4**
> 히스기야가 모세의 놋뱀을 부숨: 하나님이 주신 물건도 숭배 대상이 될 수 있음(프레임)
>
>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 **신명기 31:25-26**
>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게 함: 원본 보관의 규례(오웬)
>
> 25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6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 **골로새서 4:16**
> 서신을 다른 교회에서도 읽게 함: 신약 문서의 즉각적 필사·회람(오웬)
>
>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 **디모데후서 2:2**
>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첫 사본들이 믿을 만한 손에 맡겨짐(오웬)
>
>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 오웬

📜 7. 왜 완벽한 사본은 주지 않으셨을까: 함께 받는 말씀 (프레임 33장 · 오웬 둘째 논고 2장)

완벽한 사본을 주시려면 하나님은 모든 필사자의 순간적 실수와 본문을 비틀려는 죄의 성향까지 그때그때 막으셔야 합니다. 프레임은 이 질문이 완벽한 번역, 완벽한 설교는 왜 없느냐, 아예 성경 없이 즉시 깨닫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과 같다고 짚습니다. 하나님이 번역과 가르침을 틀릴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신다면, 필사를 맡기신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의 조심스러운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말씀 둘레에 모여 서로의 언어·가르침·삶의 은사에 기대어, 말씀을 '함께' 받아 자기 것으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웬은 필사자의 무오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은 필사자의 경건한 정성과 경외였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운명이 걸린 말씀을, 수많은 눈과 수천 개의 대조 사본 앞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감시하며 베꼈으니 호메로스 필사와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틀릴 수 있는 사람들의 수고, 그것도 공동체의 수고를 통해 말씀을 지키신다는 데서 만납니다.

1. 완벽한 사본 요구 = 완벽한 번역 요구
2. 하나님은 보통 사람의 수고로 일하심
3. 말씀은 공동체로 함께 받아 내 것이 됨
4. 필사자는 무오 아닌 경건한 정성(오웬)
5. 많은 눈과 사본이 서로를 지켰다

> **에베소서 4:12**
>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 공동체적 말씀 이해의 토대
>
>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고린도전서 14:26

모임의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1

서로 덕을 세우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필사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경건한 정성과 부지런함, 그리고 상대하시는 분에 대한 마땅한 경외뿐이다." — 오웬

📜 8. 잃어버린 말씀은 없나 (프레임 33장)

전달이 완벽하지 않다면 무언가를 잃었을 수 있고, 실제로 마가복음이 원래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프레임은 말씀의 분실이 성경 안에도 선례가 있다고 답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대부분은 기록되지 않았고,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도 남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해 남길 필요가 없다고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마태복음 4:4)은 역사에서 하신 모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뜻합니다. 프레임은 네 가지로 결론짓습니다. 원본 일부를 다시 찾을 희망은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원문은

반복 덕분에 온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려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말씀 분실은 성경 안에도 선례 있음
2. 예수님의 행적 대부분은 기록 안 됨
3. '모든 말씀' =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
4. 무엇을 남길지 하나님이 정하심
5. 주시려던 말씀은 하나도 잃지 않음

마태복음 4:4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분실 문제의 출발점이자 해답의 열쇠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21:25

예수님이 행하신 일 대부분은 기록되지 않음: 분실의 선례

>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고린도전서 5:9

바울이 전에 쓴 편지: 보존되지 않은 서신

>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린도후서 7:8

프레임이 또 하나의 보존되지 않은 바울 서신으로 제시하는 구절

>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앎이라

📜 9. 번역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프레임 34장 · 신앙고백서 1.8 · 오웬 둘째 논고 2장)

원어를 모르는 성도에게 번역 성경은 반쪽짜리 말씀일까요? 프레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일 자체가 영원한 생각을 사람의 말로 옮기신 '첫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번역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줄어든다고 보지 않습니다. 언어가 여럿인 것은 바벨의 심판이지만, 오순절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은 일이 그것을 부분적으로 되돌렸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본성 때문에 번역은 처음부터 긍정되어야 합니다. 번역은 늘 뉘앙스를 조금씩 잃지만 원문의 뜻을 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라는 것이 프레임의 결론입니다. 오웬은 거의 같은 말로, 번역은 원문의 말과 뜻을 표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원문을 고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신앙고백서 1.8은 이 둘을 한 절에 묶습니다. 논쟁의 최종 호소처는 원어 성경입니다(라틴어 불가타를 표준으로 삼은 트리엔트 공의회와 대비됩니다). 동시에 모든 성도에게 성경을 읽을 권리와 명령이 있으니 각 나라 일상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프레임은 실제적인 조언도 덧붙입니다. 직역과 의역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의미를 전하므로 목적에 따라 고르되, 스터디 바이블 해설처럼 사람이 붙인 것은 영감된 본문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이 첫 번역자(프레임)
2. 바벨의 심판, 오순절의 부분적 회복
3. 번역은 충실한 만큼 하나님 말씀(셋 모두)
4. 원문이 기준, 번역은 원문으로 점검
5. 해설·주석은 영감된 본문과 구분

> **고린도전서 2:9**
> 삼위 하나님의 언어는 사람의 귀가 들은 적 없음: 하나님의 말씀하심 자체가 '옮김'(프레임)
>
>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 함과 같으니라

[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

사도행전 2:1-2

오순절 사건(프레임의 표기). 각자 자기 언어로 듣는 장면이 바벨의 부분적 반전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요한계시록 14:6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을 향한 복음: 번역이 복음의 본성임(프레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복음 5:39

성경을 상고하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신앙고백서 1.8)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4:9

알아듣는 말로 해야 함: 번역의 필요(신앙고백서 1.8)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써 알아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로마서 15:4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짐: 번역의 목적(신앙고백서 1.8)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불완전한 번역도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프레임

"번역은 원문의 말과 뜻을 표현하는 만큼,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다." — 오웬

"성경은 그것이 들어가는 모든 나라의 일상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 신앙고백서 1.8

🗣️ 다섯 목소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프레임	무오는 원본 '종이'가 아니라 원본 '글'에 속하고, 그 글은 정확한 사본과 본문 비평과 번역을 통해 거의 완전하게 우리에게 와 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려던 말씀은 하나도 잃지 않았다	문서와 원문의 구별, “모르겠다”는 정직, 말씀의 공동체적 수용, 바벨에서 오순절로 이어지는 번역의 의미	보존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사야 59:21)에 묶는 근거, 실제 역사 속 본문 논쟁 사례 — 오웬이 메운다 **이사야 59: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워필드 (부록 4)	이 부록은 사본·번역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대신 사람의 흔적이 하나님 말씀임을 반박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준다 (영감에 관한 논증)	하나님과 사람은 땅따먹기하지 않는다: '협력'으로 모든 단어가 온전히 신적이며 인간적	자필본·사본·본문 비평 논의 자체 — 프레임과 오웬이 메운다
바빙크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음 (이번 편 재료에 없음) — 프레임이 메운다	—	이 편 전체 — 프레임이 메운다
신앙고백서 1.8	원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영감하시고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지키셨으므로 표준 본문이다. 모든 성도를 위해 각 나라 말로 번역해야 한다	원어 본문이 논쟁의 최종 호소처, 성도의 성경 읽을 권리와 번역 의무	'순수한 보존'이 사본 간 차이와 어떻게 함께 가는지의 설명 — 오웬과 프레임이 메운다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있었지만, 하나님은 섭리와 경건한 정성을 통해 말씀 전체를 원어 사본들 안에 일점일획까지 지키셨다	자증의 사슬), 추측이 아닌 실례, 번역으로 원문을 고치지 말 것	본문 비평을 신앙의 도구로 편하게 쓰는 태도 — 프레임이 메운다

다섯 목소리는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원본 종이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틀릴 수 있는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 원본의 글을 지키셨다.” 신앙고백서는 이것을 고백문으로 못 박고, 오웬은 그 고백을 17세기의 실제 본문 논쟁 한가운데서 변호했습니다. 프레임은 같은 확신을 오늘의 질문(원본 무오는 회피인가, 쓸모없지 않은가)에 맞게 다시 설명합니다. 오웬과 프레임은 본문 비평을 대하는 온도가 다릅니다. 오웬은 이문 목록이 확신을 흔들까 경계했고, 프레임은 그것을 원문에 다가가는 도구로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증거 있는 곳에서만, 추측이 아니라 실례로”라는 원칙은 같습니다. 워필드의 부록은 이 논의의 뒤에 깔린 전제, 곧 “사람 손을 거쳤으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영감의 차원에서 무너뜨려 줍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무오성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성질.

불오성

자필본
성경 저자가 처음 완성해 직접 쓰거나 승인한 바로 그 문서로, 지금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자증성
성경이 다른 권위의 보증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성질.

원문(텍스트)
자필본에 적힌 '글의 내용'으로, 종이가 사라져도 정확한 사본 안에 같은 글로 남는다.

사본과 이문
사본은 원본을 손으로 베껴 쓴 책이고, 이문은 같은 구절이 사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힌 것이다.

본문 비평
여러 사본을 비교해 원래 글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내는 학문.

섭리적 보존
하나님이 기적적인 무결 필사가 아니라 평범한 역사와 사람의 정성을 통해 처음 주신 말씀을 지켜 오셨다는 가르침.

70인역
예수님 이전에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옮긴 번역으로, 신약 저자들이 자주 인용했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무오는 사라진 원본 '종이'가 아니라 원본 '글'에 속하며, 이는 “가감하지 말라”며 성경이 스스로 그은 선이다.

- 사본 차이는 실제로 있으나 사소하고, 증거 있는 곳에서만 인정하며, 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 원어 본문이 기준이고, 번역은 원문의 뜻을 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자기 말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던 말씀은 하나도 잃지 않았다.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신앙고백서 · 1장 성경에 관하여 (10절, 1647 영문)
- 프레임 · 성경의 전달
- 프레임 · 성경의 번역과 편집
- 오웬 · 둘째 논고 · 히브리어·헬라어 본문의 순수성과 온전함 1~2장(요지용)
- 워필드 · 부록 4 성경의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